

## 「黃金史」研究(二)\*

金 芳 漢\*\*

天命으로 태어난 君主께서 怒하시여 調査하고계실 때, 「장」하는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열날부터 당신의 黃金胡琴을 守護했습니다. 無賴하고 나쁜

【34】 性格은 연지 않았읍니다. 強酒에 재가 잘 못하던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強酒에 잘 못했다고 해서 당신의 黃金胡琴을 들고 분에 넘치게 생각하지 않았읍니다. 스무살부터 神聖한 당신의 胡琴을 守護했습니다. 당신의 知慧를 배웠읍다. 輕薄한<sup>(1)</sup> 나쁜 性格은 연지 않았읍니다. 強酒에 잘 못하던 것은 사실입니다. 強酒에 잘 못해서 神聖한 당신의 胡琴을 들고 주제넘은 생각을 하지 않았읍니다』고 上言함에, 『잘 盟誓해준 나의 알하순 홀치여! 재치있게 말해준 나의 홀치여!』고<sup>(2)</sup> 말씀하시고

\*本研究는 東亞文化(第6輯 1966)「黃金史」研究(一)의 계속이다.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教授(言語學)

[34] (1) qolčaryan: cf. [G. P2] qolčiryan, [U] qolčirayan. -yan을 接尾辭로 보면 qolčir(a)가 問題된다. 그리고 qolčaryan < qolčiryan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KD 93]에 의하면 qolčir=dissipateur, qolčiryan=dissipation, prodigalité, luxe, splendeur, magnificence. 그래서인지 [B 135]는 I have never acquired evil dissipated way로, [OA 168]는 「奢レル」 등으로 翻譯하고 있다. 그러나 이 譯語는 前後關係로 보아 적당하지 않으며 특히 [KM 42]가 「惡漢[의]」로 한 것은 明白한 誤譯이다. 이 句節은 arqasun qurči가 強酒에 醉해서 경솔하게 醜汗을 부린것을 成吉思汗에게 사과하는 말의 一部分이다. 그러므로 [RK 183] xol'tšr=leichtsinnig와 같은 뜻으로 「輕率한」으로 翻譯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2) aman-ıyan sayin-du ɣaruɣsan arqasun qurči minu. qosing-ıyan sayin-du ɣaruɣsan qurči amin-u: arqasun qurči의 말에 對해서 成吉思汗이 하는 말의 一部分이다. aman(-ıyan sayin-du) ɣar-은 特殊한 慣用句이다. [B 136]는 單純히 uttering your word well로 翻譯하고 있으나 그다지 적당한 譯語가 못된다. [KD 96]에 의하면 dire의 뜻도 있으나 이것보다는 오히려 그 다음에 있는 promettre의 뜻에 가깝다. 그러므로 筆者는 「盟誓하다」의 뜻으로 보았다. 이 句節에 對한 從來의 解釋은 다음과 같다. [KM

죽이지 않고 널리 敕示하시고 散會시켰다.

聖君이 可汗國을 自己 政權에 넣고 黃金可汗의 자리를 얻었음을 唐군의 시들후 可汗이 듣고 무서워했다. 巴安 살타가이의 아들 에레 돌등은 『당신의 오른 손이 되어 貢物을 바치겠습니다』고 하여 使臣을 보냈다. 그 使臣이 君主에게 上言하고 돌아올 때, 『聖主께서 하늘의 아드님이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皇后보다,

**【35】** 우리 皇后가 훌륭하시다. 그 [분의] 빛으로 밤에 燈이 必要 없습니다』고 이 말을 하고 돌아갔다. 聖主는 타이추군의 妻 珉규륜 高오아를 代리고<sup>43)</sup> 살고 있었다. 珉규륜의 말을 妻 珉규륜 高오아보다, 可汗의 妻 牙尼 世辰오미타이의 딸[인] 唐군의 可汗의 妻 珉규륜 高오아라는 이름의 皇后의 빛으로

43] 善くも口を出したわがアラクスン・ホルチよ！ 善くも戯言を出したわがアラクスン・ホルチよ！ : [OA 168] 弁舌を巧みに出せる吾がアルガソン・ホルチよ, 言の葉を巧みに出せる我がアルガソン. ホルチよ : [B 136] My Arγasun Qurči uttering your words well, my Qurči uttering your mockery well, [KM, OA]는 直譯에 가깝고 [B]는 比較的 正確하다 하겠으나 qosing의 뜻을 正確히 把握하지 못했기에 이 句節의 全體的 文意이 明確하지 않다. 또 [OA 131]가 「辯舌を巧みに出せる…」 「口突を巧みに出した」처럼 「辯舌…, 口突…」 뜻으로 보는 것은 [KM, B] 다 같이 原來의 뜻과 오히려 反對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句節은 술에 醉해서 輕率한 行動을 한 것을 술직하게 사과하는 것을 듣고 成吉思汗이 그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arγasun qurči의 말이 한낱 「口實」이 되어서는 前後文脈에 맞지 않는다. argasun qurči의 말은 自己의 잘못을 是認하고 成吉思汗의 黃金胡琴을 들고 다른 곳에 가서 잤다는 것은 그의 成吉思汗에 대한 忠誠心을 의심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 점을 사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句節에서는 慣用的인 뜻을 살려서 aman... yar-를 [KD]의 promettre 또는 [LM 33] dabat' slovo(約束하다), kljast'sja(盟誓하다)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 qosing에 關係서도 이것을 「戯言」[KM]과 같이 보면, 前後關係로 보아 어색하며 또 [B]처럼 mockery로 翻譯한 것은 더 어색하다. [OA]의 譯語도 같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차라리 「재치있게 말하다」의 뜻이 前後關係와 調和한다.

[35] (1) tataju yabuqu: [KM 44] 「連れて行つてゐた」는 完全한 誤譯이요, [OA 146, 168] (…を)「納れて過しありき」도 漠然하다. [B 136] The Holy Lord had been using (the wife of Jabuqa of the Tayičuγud, Mönggölün [ooa,] as a concubine은 完全한 意譯으로 正確히 文意를 把握하고 있다. tataju yabuqu는 國語의 「…를 代리고 살다」와 꼭 같은 表現이라 하겠다. 이 경우의 yabu-는 vivre d'une certaine manière [MO 399]의 뜻에 맞다. yabu-에는 「가다」의 뜻外에 一般的으로 「사다(生)」의 뜻도 있다. [Ibid., KD 2259].

밤에 燈이 必要 없다고 합니다. 그[녀]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고 이 말을 上言했다. 그 後 『살타굴國으로 길을 떠났다(出征했다). 너희들도 出發하라!』고 시들구可汗에 使臣을 보냈다. 그 使臣에게 『모든 것을 占有하지 않고 있으면서 「可汗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나? 可汗이란 사람에게 친구가 왜 必要한가?』고 말하고 따르지 않았다. 그 말을 듣고 君主는 『黃金의 生命이 없어질 때까지 너를 놓치지 않겠다』고 盟誓했다. 살타굴의 술탕可汗을 죽이고 그 나라를 自己의 政權에 넣고 駐在했다. 그 軍士에게 후란 皇后를 데리고 出征했다고 한다. 그 後 至德

【36】上天에서 聖主에게 德의 힘으로 寶石 잔에 甘露의 술을 채워 下賜했다. 무서운 聖主가 들어 잡수시려고 할 때, 上言해 말했다. 그의 네 아우는 『兄에게 열이라면 아우에게는 넷이라고 합니다. 오! 나의 흐가 많이 잡수신다면 可憐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조금만 주십시오』라고 上言하며 『明察하소서!』라고 上言했다. 聖主는 네 아우에게 말씀하시기를 『前에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옴은 손에 龍의<sup>(1)</sup> 寶玉璽가 至德佛陀의 命으로 있었다. 지금 至尊天主가 하늘에서 寶玉 잔에 甘露酒를 채워서 下賜하셨다. 나는 그의 至尊神命의 主가 아닌가고 생각한다. 지금 마시고 싶으면, 어서!』고 하시며 下賜했다. 네 동생은 듣고 마셨으나 입에는 들어가도 목에는 [내려] 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네 동생이 主께 上言하기를 『天命의 主께 대해서 天命이 없는 저희들은 당치도 않게 言爭을 했습니다. 당신의 동네 租稅를 管理하는 官人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37】主上이여! 잡수십시오』라고 하며 머리 수저 바쳤다. 主는 듣고 잡수셨다. 그 甘露에 聖主는 醉해서 [몸이] 더워지고 말씀하시기를 『前에 내가 태어났을 때, 佛陀의 命으로 龍可汗의 寶玉璽를 (취고) 있었다. 지금 至尊 홀무스다 上帝가 하늘에서 寶玉잔에 甘露의 술을 채워 下賜

【36】 [B 54] luus-us의 -us는 -un의 誤記.

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天命을 받은 國主이다』고 말씀하셨다. 시들후汗의 검은 코등을 한 黃色 糝을 鷓鴣이라는 이름의 개는 豫言者라고 하며 聖主가 아홉 다리를 가진 白糝을 바르게 끌고 三年間 出陣하여 머무렀다. 그개가 『健勝, 太平, 健康, 幸福, 安泰』라고 짓으면 敵이 없고, [마구]짓으면 敵이 있었다. 그 개는 主의 出陣을 알고 三年間 [마구]짓었다. 『내 개는 늙어서 그의 豫言이 없어졌다』고 하며 警備 없이 지냈다. 그뒤 步兵을 개의 해에<sup>(1)</sup> 보내고 돼지 해<sup>(2)</sup>에 聖主는 이수이 皇后를 데리고 出陣하여 兵士들을 指揮하며 스스로 出陣했다.

【38】 聖主는 穆納의 봉우리를 보고 말씀했다. 『亂世에는 避難地가 있고, 太平世에는 살 곳이 있고, 지금은 誘引된 숫사슴이 살곳이 있다』고 말씀했다. 나무위에 앉은 나뭇 소리(를 가진) 부엉이를 보고 主는 하살에게 『쏘아라!』고 말씀했다. 하살은 쏘았다. 부엉이는 [날라]일어나고 그 사이에 까치가 와서 그 날개가 맞았다. 主는 [쏘지] 못하게 하고 칼을 들어 올렸다. 兀鴉은 主에게 말했다. 『좋은 색도 나쁜 물감<sup>(3)</sup>이라고 합니다. 主께서 스스로 아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主는 是認하여 말했다. 그後 奴僕 마진 하살은 『당신의 동생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후란

[37] (1) 戊丁(1226).

(2) 丁亥(1227).

[38] (1) sayin-u saltar mayu-yi-yin sarbuy gem: 이 句節도 從來 여러가지 解釋이 있으나 本稿에서는 直譯을 취했다. [B 138] It is said that good colouring is bad (sarbuy) [K 48] 「善のサルタル, 惡のサルホクと申します(註)」(註)この一句の意味は明瞭でないが, ゴ氏譯文には善をしようとしたら, 惡が出たといふ意である」と曰つてゐる(同譯書一四一頁). 蒙古源流에는 「妙繪每變色於惡染」도 滿文譯으로는 「妙彩も惡しきに近づかば色變ず」(江實, 蒙古源流, p. 62). [B 138]는 sarbuy/sarabuy의 뜻을 辭典에서 찾아 볼 수 없음을 들고 또 saltar은 qaltar에 대한 誤記로 보고 있다. (qaltar [KD 800] variété des couleurs; tache, souillure). 蒙古字 q를 s로 잘 붓볼 可能性은 있다 그러나 筆者는 sarbuy를 sar(a)+buy(혹은 butuy)의 複合語로 보고저 한다. 「色·漆」등을 의미하는 文語의 sira가 Urd. Kh. Bur. Kalm. 등 方言에서 所謂 Breaking에 의해서 šar(a) 등이 되며 이것이 위의 sar-에 該當하는 것으로 보겠다. (Poppe; Introduction to Mongolian Comparative Studies, Helsinki 1955, p. 39). 그리고 buy(<butuy) [染料]으로 본다면 蒙古源流의 「(惡)染」과 一致한다. 이렇게 본다면 「좋은 색도 나쁘게 물든다」의 文이 省略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또한 本稿에서 筆者가 提示한 直譯과 같이 「좋은 색도 나쁜 물감(이 된다)」의 뜻으로 취할 수 있다.

皇后의 손을 잡았습니다』라고 주께 말했다. 『하살에게서 매의 털을 가지고 오너라』고 하여 奴僕 마진 하살을 보냈다. 『萬民의 主 可汗이라 할 지라도, 매의 털을 내가 가지는 것이 좋지 않는가』고 말하고, 매의 털을 주었다. 『倉庫에 간수 하라』고 가지고 가지 않았다. 『하라 할진<sup>(2)</sup> 새를 죽여서 가지고 오너라』고 보골 마진을 보냈다. 하라 할진 새가

【39】 날라가는 것을 보고, 『旋回하는 어느 곳을 쏘 것인가?』고 보골 마진에게 물었다. 보골 마진은 말하기를 『黑과 黃의 두 사이를 쏘라』고 말했다. 그의 코등을 쏘아서 바쳤다. 『汗에지 사람의 道理에 맞는 매의 털을 바치자』고 말했다. 『이것은 아니다. 하라 할진이다. 피가 묻었다』고 가지고 가지 않았다. 그래서 호는 怒하셔서 『前에는 일곱 흥호타나가 다음이 一致하여 살았다. 그 뒤에는 나쁜 소리의 부영이를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소리의 까치를 죽였다. 지금은 매의 털을 주지 않았다』 [그는 그를] 네 사람으로 지키게 하고 짐승의 밥을<sup>(1)</sup>을 주고, 울타리가 있는 셈에 묶어 두었다. 할하이 한[山]에서 큰 사냥을 할 때, 말했다. 『蒼白色 늑대와 淡黃色 사슴이 들어 올거다. 그것을 죽이지 말라! 靑灰色[의] 말을 가진 곱슬 머리 길의 사람이<sup>(2)</sup> 들어 올거다. 그 사람을 사로 잡아라』고 말씀했다. 蒼白色 늑대와 淡黃色 사슴이 들어 왔어도 죽이지 않고 보냈다. 靑灰色 말을 가진 사람을 잡아서 『너는 누구냐?』고 물었다. 말하지 않았다.

【40】 주에게 데리고 가서 주었다. 주께서 물었다. [對答하기를] 『蒙古의 聖主와 軍士가 出陣했다고 하여 시들후可汗이 斥候를 보냈다. 『힘

(2) cf. haljin anggir: 鶻鷲鵝(內陸アジア研究所, 五體情文鑑 上卷 p. 1046).

【39】 (1) görügesün-i künesün-i ögčü: [K 51] 兕を糧食として与へ. [B 139] ...gave him provision of wild bull's meat. görügesün-i의 -i는 屬格語尾로 보아야 하고, künesün-i의 -i는 對格語尾이다. [B]는 이 關係를 正確하게 보고 있으나, [K]의 翻譯은 要領不得이다. 屬格語尾 -i는 -u의 口語形.

(2) Mo. qara kümün, i.e. "ordinary man". cf. [B 139, FN. 5].

이 쉰<sup>(1)</sup>말에 뒤지지 않는 쾃뵈렐 쾃케 보르<sup>(2)</sup> [라는 말이] 있습니다. 뛰어서 네 발굽이 지쳤습니다. 검은 머리의 사람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빨로 찢는 검은 뱀뱌지라고 합니다. 저의 머리는 지쳤습니다.』  
 聖主는 물었다. 『너의 主의 化身을 말하라! 眞실을 말하라!』고 말씀했다. 뱀뱌지는 말하기를 『아침에는 毒蛇 노란 점[이 있는] 뱀이 돼서, 그것을 잡을 수 없고, 낮에는 褐色 점[이 있는] 호랑이가 돼서 그것을 잡을 수 없으며, 밤에는 宿所에서 아름다운 노란 점은이가 돼서 皇后와 더불어 놀고 있다. [그때] 그것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여기서 主는 當근의 나라의 境界에 다다러 갔을 때, 時들후 皇后의 妖怪根源인 妖術장이 검은 老婆가 蒙古의 兵士를 맞이하고 兵士와 騙馬를

【41】 저주하며 殺害했다. 王에게 쉰베게테이 바가틀이 上奏하기를 『아老婆는 나의 軍士와 騙馬를 저주하여 殺害했습니다. 활을 잘 쏘는 哈살을 大자삭에서<sup>(1)</sup> 내보내시라』고 말했다. 主는 是認하시고 스스로 날개 있는 淡黃色 말에 태워서 데리고 와서 쏘게 했다. 哈살의 脛은 高랑 때 문에 아파서 老婆의 무릅의<sup>(2)</sup> 脛들을 쏘았다. 그 老婆는 옆으로 넘어지

[40] (1) köl-tü morin: [B 139] footed horse. [K 51] 脚のある馬. 모두 誤譯이다. köl-tü는 하나의 慣用語로 보아야 할 것이며 直譯으로는 뜻이 통하지 않는다. 一般辭典에는 보이지 않으나 Ramstedt의 Kalmück 方言辭典에 의하면, köl-tä 1) mit fuss, füssig. 2) spez, auf grund, wegen (mit abl.), 3) stark, helfig 등이 보이며 여기서는 3)의 뜻에 一致한다.

(2) küsbüled köke boro gegči bile: [B 139] This is my bluish-grey horse called küsbüled ... [B]의 翻譯은 gegči가 마치 küsbüled에만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原文의 文脈關係는 차라리 küsbüled köke boro 全體가 gegči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küsbüled는 kös-bolod의 複合語로 생각된다: k'ös dans Gal k'ös 'feu' [MD 432]. bolod: 鋼(鐵)

[41] (1) yeke jasay-ača yaryayasai: [B 140] send out (alters-hooter Qasar) from the great punishment. [K 52] (善射ハサルを)大ヂヤサからお出しなされ! [K]는 jasay을 「政事」(더 詳細히는 Vladimircov, op. cit., p. 62參照)로 보고 있으나, 前後關係가 맞지 않다. 또한 [B]도 jasay와 yaryayasai의 關係가 석연하지 않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直澤觀을 暫定的으로 提示한다. 그러나 蒙古源流에는 「乞將弟哈薩爾恕免」(江實, op. cit., p. 24)로 있기에 [B]의 翻譯과 一致하나 蒙古語 自體의 正確한 解釋이 要望된다.

(2) nidün-ü keče: 이 句節은 蒙古源流의 「(即指老媪之) 膝蓋(射之)」에 該當한다. 그러나

며 죽을 때, 『하살의 男女 자손은 상처로 죽어라! 女子 자손은 [男便에게] 버림 받아라!』고 저주하며 죽었다. **시들후** 可汗이 뱀이 되었을 때, 主는 鳳<sup>(3)</sup>이 되었다. 호랑이가 되었을 때는 主는 사자가 되었다. 어린이가 되었을 때는 主는 老翁이 되어서 잡았다. **시들후** 可汗이 主께 말하기를 『나를 죽이지 마시오! 셋별(金星)을 잡고 敵을 죽이겠습니다. 彗星을 잡아서 天災饑饉을 없이 하겠습니다. 저를 죽인다면 당신 生命에 좋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는다면 당신 자손에게 나쁩니다』고 이렇게 上奏했다. 그 말에 따르지 않고, 쏘고 찢라도

【42】 찢라지지 않았다. **시들후** 可汗은 말하기를 『내 몸을 너희들이 찢르고 쏘아도 비어지지 않는다. 내 신바닥에 세번 접어서 감은 무늬 있는 두 띠(帶)가 있다<sup>(1)</sup>. 그것으로 목을 졸라서 죽여라!』고 말했다. 그 두 띠를 들고 목을 졸라서 죽이려할 때, 『나를 지금이 되어서 죽인다면 뒤에 너의 자손도 나와 같이 목이 졸려서 죽어라!』고 말하며 『나의 퀴벨진 皇后를 검은 발톱부터 샷샷히 分明하게<sup>(2)</sup> 調査하라』고 말하며 죽었다. 聖主는 퀴벨진 皇后를 언었다. 퀴벨진고아 皇后의 용모를 主를 비롯하여 온 國民이 경탄했다. 퀴벨진 皇后는 말했다. 『이 나의 용모는 너희들의 軍士의 먼지로 흐려졌다. 지금보다 前에는 더 고왔다. 지금 물에

蒙古語 原文의 keče, nidün은 다 그 解釋이 容易하지 않다. 筆者은 keke에는 「매듭」의 뜻이 있기에 「두릅의 매듭」 즉 「膝蓋」와 一致하는 것으로 보았다.

(3) garudai: [KD 1011]nom d'oiseau fabuleux. [MO 253] GarDi dans Xan GarDi 'l'oiseau Garudai,' mo. garudi <sanscr. [k 54]에는 「鳳凰」이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서로 區別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五體清文鑑 上卷 p. 879] 鳳凰의 鳳, mo. garudi=ma. garudai. 또한 鳳凰의 凰은 mo. gerudi=ma. gerudei. 本稿에서는 五體清文鑑의 것에 따랐다. [MJ]에 의하면 『ガルタ鳥, 神話ニ傳ハレル不死ノ怪鳥』

[42] (1) ɣurban quɣuskijju ebkegsen eriyen qoši olang bui: [B 140] In the sole of my foot is a triple-folded, rolled up strip, double saddle-girth. [k 54] 三つ折りに包んだ斑紋の繩がある. quɣuski-는 quɣus+ki로 생각된다. quɣus-에 관해서는 [HW 71] huhus 折 ab(gebrochen). [MJ 664] quɣus ki- 二分する. 또한 [MO 364] quɣusla- 'plier'. olang=olang [KD 403] la sangle

(2) qaras: [HW 56] hahs 分明. A. Mostaert; Sur quelques passages de l'histoire secrète des Mongoles, p. 397.

씻는다면 매우 고와질 것입니다. 이 말에 聖主는 『물에 씻으라!』고 하시며 보냈다. 그 皇后는 물가에 씻으려 가서 푸른 종달새를 잡아서 꼬리에 글을 써서 『나는 이 물에서 죽습니다. 내 몸을 下流에서 찾지 마시고 上流에서 찾으시오』라 하며 아버지에게

【43】 보냈다. 딸의 말대로 찾아서 江上流에서 찾아서 데리고 와서 묻었다. 물으려할 때, 한 사람 한 사람<sup>(1)</sup> 皮袋로 흙을 뿌리고 묻었다. 그 부덤을 테물울후라 하고, 그 江을 皇后의 江이라 한다. 그 당군의 나라를 服從시키고 시들후 皇后를 죽여서 鎔메게이城을 쳐부시고 팔벌진 고아 皇后를 데리고 그 길에 루우방 카간山에 避暑하고 鎔메게이 城에서 聖主는 甚히 熱이 나서 그의 黃金 生命이 위독할 때, 말씀하시기를

『麝香鹿 같은 네 兄弟여!

駿馬 같은 네 아들이여!

나의 四色五夷여! 듣거라!

가죽 등자(鎧子)가 늘어질 때까지

쇠 등자가 타오를 때까지 展開하여

大人民을 고생해서 데리고 專心 모을 적에도 이처럼 고통을 격지 않았다.

不妊의 말을 타고 염소가죽 외투를 걸고 大人民을 고생해서 데리고 專心 모을 적에도

이러한 고통을 본적이 없다. 나는

옛날 생활의 應報<sup>(2)</sup>일 것이다!』고

【44】 聖主는 이렇게 말씀했다. 『나의 아들<sup>(1)</sup> 모든 大臣은 나와함께 죽자』고 말씀 하셨다. 슈닌의 키뤼케테이 바가들은 말하기를,

[43] (1) toloyai-ıyan niĵeged: [B 141] one per head. [K 56] 頭の一部(を). 蒙古源流 (江實 op. cit p. 24) 每人.

(2) öri törögesün: [KD 580] dette. [MJ 449] 負債, 義務, 本分.

[44] (1) edün: [HW 41] 這些(每). diese paar, diese vielen, diese (mehreren)



『碧玉인 당신의 政統이 衰低하리라.

총애하는 당신의 빌테켈진 치친王妃는 죽으리라.

당신의 하살과 벨게테이는 서로 싸우리라<sup>(2)</sup>.

빼앗어 대려온 많은 人民은 어딘가에 흐터지리라.

高大한 당신의 政統은 衰低하리라.

永遠히 굳게 만난 당신의 빌뤼케테이 치친王妃는 죽으리라.

당신의 외게테이 튀뤼이 두(아들은) 孤兒가 되리라.

곧<sup>(3)</sup> 당신의 모든 많은 人民은 다른 사람 것이 되어서 흐터지리라.

山(같은)<sup>(4)</sup> 당신의 政統은 衰低하리라.

얻어 名譽로운 빌뤼테이 켈진 치친王妃는 죽으리라.

당신의 오추후, 하추후 들이는 서로 싸우리라.

(2) *balγtum-ja*: *bolγtum*으로서는 뜻이 통하지 않는다. [B 142]와 같이  $P_2$ 의 *buliyaldu*로 보는 것이 合理的이다. *buliyaldu* 「議論하다, 爭論하다」.

(3) *ürisün*을 굳이 [B 142]처럼 解釋할 必要는 없다. 될 수 있는限 原文에 忠實하게 보아야 한다.

(4) 前後文章이 첫째 다음과 같이 頭韻을 밟고 있는 것에 注目된다.

*Qas bolγsan törü čin-u boγonidum-ja.*

*Qayira-tu börtekeljin čičin qatun čin-u üküm-ja.*

*Qasar belgetei qoyar činu bolgtum-ja.*

*Qamurun jögegsen olan ulus činu qamiγasi yaγasi tarqam-ja:*

*Ündür bolγsan törü čin-u boγonidum-ja.*

*Önide batuda uçarγsan börtekeljin čičin qatun čin-u üküm-ja.*

*Ürisün jögegsen olan ulus čin-u öbere kümün-ei bolun tarqam-ja*

(i) *Aγula bolγsan törü boγonidum-ja*

(ii) *Olju tokiγsan börtekeljin čičin qatun čin-u üküm-ja.*

(iii) *Očoqu qačuqu qoyar čin-u bölügedüm-ja.*

(iv) *Olana jögegsen olan ulus čin-u aγula tayiγa büri tarqam-ja.*

*Qangai qayan-i qaǰiγulaju negüm-ja.*

*Qatun köbegüd čin-u küilen qayilan irem-ja*

여기서 (i)(ii)(iii)(iv)가 頭韻을 밟고 있는데, (i)의 *aγu*가 다음 行의 各 *o*-와 押韻되고 있음에 注目된다. 이것은 *aγu*-의 밑의 *a*-와 押韻하는 것이 아니라, *aru*-> *ü*-가 *o*-와 押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事實은 本 Altan Tobči 蒙古語의 性格을 究明하는데 있어서 重要한 事實을 暗示하고 있다.  $V_1V > V'V > v$ 와 같이 變化하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므로 本書에서 *aγu*가 *o*-와 押韻한다는 것은 위에 말한 *v*의 段階을 말하는 것이다.

너의 많이 모인 人民은 山과 숲을 넘어서 흐려지리라.

항하이 카간山 쪽에서 遊牧하리라.

당신의 王妃와 아들들이 모아 울리라.

그들에게 어떤 좋은 敎訓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山] 南쪽 (기슭에) 따라서<sup>(5)</sup> 遊牧하리라.

당신의 딸 아들이 모여서 울리라.

**【45】** 그들에게 어떤 좋은 敎訓을 내리실 수 없습니까?

嬰兒의 몸을 부수는 것은<sup>(1)</sup> 어려운 일입니다.

혹 부쉬면 涅槃의 땅에서 우리들이 만난다는 것은 事實입니까?

健康한 몸을 치는 것은<sup>(2)</sup> 어려운 일입니다.

혹 친다면 平和로운 곳에서 우리들이 만난다는 것은 事實입니까?

寡婦로 남은 당신의 嬖媵 絳진 치친王妃와 孤兒로 남은 당신의 외계

테이 튀튀 두 (아들)에게

(5) üküi ünder-i ölkelen negüm-ja: [B 142] They will lead a nomad life along the southern sides of the heights you have given them. [k 58] ハンガイ山の方に遊牧することせう. [B]는 üküi를 G에 딸아서 ögküi로 보고 이것을 ...you have given them으로 보고 있으나, ögküi로 본다 할지라도 文法的으로 그러한 翻譯은 無理다. cf. N. Poppe; op. it., p. 94. The nomen futuri... Another suffix is qui/-küi. In the pre-classical language-*qu* and *-qui* were used indiscriminately, but in the modern and classical language forms in *-qui* are used only as substantive nouns, i.e., they seave as subject and object but not as attribute or predicate. 따라서 이 同一한 句節內에서 위에서 본 *aγu->ü*와 같은 變化와 [B]와 같은 先古典語的 用法이 兩立한 다는 것은 좀 異常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勿論 先古典文語蒙古語에서도 *v*의 變化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M. Weiers; Untersuchungen zu einer historischen Grammatik des präklassischen schriftmongolisch, Wiesbaden 1966, p. 23). 이러한 점에서 [B]의 可能性을 是認한다면 Altan Jobči — 더 正確히는 이 句節의 蒙古語의 性格을 決定하는데 있어서 重要な 暗示를 던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B]의 意見도 한 可能性을 提示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ölkelen은 그 앞에 있는 ünder-i의 *-i* 對格接尾辭로 보아 動詞로 보아야 할 것이다. ölkelen <ölke-le-n (le는 denominal verb의 語尾) ölke는 「南側, 南向」의 뜻. 따라서 筆者는 여기서 「南쪽(기슭에) 따라서」로 暫定的인 試譯을 提示하고, üküi는 翻譯하지 않고 保留해 두었다.

[45] (1) qaril bucal ügei yabužu qataγučin sedkigtün: [B 143] Going painfully and without coming back, think of this. qaril bucal은 複合語로 보아야 한다. bučal <buča-l.

砂漠에서 물을 가리켜주시고 山地에서 길을 가리켜주십시오』라고 말했다.

成吉思汗은 말씀했다.

『지금 죽어서는 안된다!

寡婦로 남은 빌테 켈진 치친王妃와

孤兒로 남은 외계데이와 튀튀이 두 사람에게

砂漠에서 물을,

山地에서 길을 가리켜 주라!』고 말씀 하셨다. 「또」

『玉石에는 껍질이 없다. 鋼鐵에는 外皮가 없다. 가련하게 태어난 몸에는 長生이 없다. 돌아가지 말고 가서 잘 생각해라! 百(가지)일을 하면, [이는] 일의 頂上! 참다운 말을 하는 사람의 생각은 強하다. 바라는 것은 적게 모두

【46】 힘쓰라! 實로 遊牧해서 주는 너희들의 몸이 아닌가! 장차 좋은 나라를 지켜라, 너희들은! 후비라이 아들의 말은 다르다. 그의 말대로 行하라. 너희들은!』라고 말씀하시고 丙亥年에<sup>(1)</sup> 六七歲로 七月十二日에 昇天하셨다. 大車에 駿馬를 매고, 君主 汗의 黃金 遺骸를 大車에 올려 실어 모시고 도라 갈 때, 슈닌의 키뤼케테이 바가들은 君主를 讚揚했다<sup>(2)</sup>.

『나르는 매의 날개가 되어 가십니까? <sup>(3)</sup> 나의 主여!

[46] (1) bing yaqai jil: 本稿에서는 原文대로 丙亥年으로 翻譯했으나 「丙亥」라는 結合은 不可能하다. cf [B 143, fn. 46, 1]

(2) 다음부터 所謂「成吉思汗의 挽歌」라고 불리는 有名한 韻文이 시작한다.

다음과 같이 頭韻에 注目된다.

qaliqu qarči-yai jēgūr bolun odbau či ejen min-u.

qangginaqu tergen-ü tegeši bolbau či ejen min-u.

toʻoliqu qarčy-rai jīgūr bollun odbau či ejen min-u.

toruriqu tergen-ü tegeši bolbau či ejen min-u.

jirgekü sibayun-u jīgūr bolun odbau či ejen min-u.

jirkiraqu tergen-ü tegeši bolbau či ejen min-u.

(3) odbau: od-ba-uu.

소리내는 車의 짐이 되어 가십니까? 나의 主여!

덕이에 달려드는 車의 날개가 되어 가십니까? 나의 主여!

도는 車의 짐이 되어 가십니까? 나의 主여!

지적기는 새의 날개가 되어 가십니까? 나의 主여!

삐적거리는 車의 짐이 되어 가십니까? 나의 主여!』라고 讚揚하고

가서 무나[山] 기슭에<sup>(4)</sup> 到着했을 때, 大車는 움직이지 않게 [흙에] 빠져서 움직이지 않을 때<sup>(5)</sup>, 五色의 駿馬도 끌어내지 못하고 모든 群衆이 크게 우려할 때, 舜의 耜耨이 바가들이

〔47〕 머리 숙여 달했다<sup>(6)</sup>.

『물은 永久한 하늘에서 天命으로 태어난

(4) muna-yin kögebür: [B 144] the marshy ground of muna. [KM 60] ムネ山のさき. kögebür은 [KD 2625] un cap, promontoire(?). 本稿에서는 暫定的으로 「기슭」으로 翻譯해 두었다.

(5) qasaq tergen inu bulu činegen sigedjü. ködelgen yadaqui-dur: cf. [B 144] The wagon stuck up to the hub and they could not move it.

[47] (1) 다음부터 「成吉思汗의 挽歌」第二段이 시작된다. 여기서는 頭韻關係를 잘 理解하지 못하던 解釋에 混亂을 가져온다.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四行이 한 節을 이루는 十節로 된 韻文이다.

[1] köke möngke tengri-de-ča jayara-bar törögsen  
külüg boγda ejen min-u.

kür yeke ulus-ıyan örkijü  
kürbei či degedü töröl-degen

[2] tıbsin bayıγuluγsan törü čin-u  
törölen bayıγuluγsan ulus čin-u.  
törögülügsen qatun köbegüd čin-u.  
törögsen qan γajar usun čin-u tende bölüge.

[3] ariγun-a bayıγuluγsan törü čin-u.  
albalan bayıγuluγsan ulus činu.  
amaray-tu qatun köbegüd čin-u.  
altan ordu qarsi čin-u tende bölüge.

[4] uran-a bayıγuluγsan törü čin-u.  
učiralduγsan qatud köbegüd čin-u.  
ürdü [uridu] jögegsen olan ulus čin-u.  
uray eligen čin-u tende bölüge.

[5] urayumal ulus irgen čin-u.  
ukiyaγsan usun časun čin-u.  
olan mongγol ulus čin-u.

힘센 神聖한 나의 主여 !  
 擴大한 人民을 버리시고  
 오셨나니 ! 당신은 ! 上生(世)에 !  
 平和로이 建設하신 당신의 政道,  
 制度세워 建設하신 당신의 나라,  
 王妃가 나의신<sup>(2)</sup> 당신의 王子들,  
 汗이 태어나신<sup>(3)</sup> 땅과 물이 저쪽에 있나이다.  
 清潔하게 建設하신 당신의 政道,  
 租稅로<sup>(4)</sup> 建設하신 당신의 나라,  
 사랑스런 당신의 王妃와 王子들 !

onon-u deligün boldaγ-a törögsen γajar usun čin-u tende bölüge.

[6] keger ajirγan-i čin-u kükül-iyer gürüjü kigsen sülde čin-u  
kinggerge büriye uriya čin-u  
kelkü bügüde ulus čin-u.

kerülen-ü ködege arulan-u qan saγuγsan γajar usun čin-u tende bölüge

[7] bütüküi-yin urida učiγaγsan börtekeljin<sup>48)</sup> qatun čin-u.

burqatu qan γajar usun nutuγ čin-u  
boqorči muqulı qoyar amaraγ nöbür čin-u.  
bürün yeke törü yosum čin-u tende bölüge

[8] qubilγan-iyar učiraγsan qulan qatun čin-u.

quγur čoγur kög daγun čin-u.  
qotala bügüde yeke ulus čin-u  
qutnγ-tu qan γajar usun čin-u tende bölüge.

[9] qaraquna qan-i dulayan geju

qatun körbeljin-i γooa qeju.  
qari-tan tangγud ulus-i olan geju.  
qayira-tu qaγučin mongγol ulus-iyen tebčibeü či ejen min-u.

[10] qayira-tu altan amin čin-u γarbasu.

qas erdeni metü kegür-i čin-u abču qariya-ni  
qatun börtekelčin-dür čin-u ücügülüye-ni.  
qamuγ ulus-tur čin-u kürgeye-ni.

(2) törögülügsen qatun : 韻을 맞추기 위해서 qatun이 뒤에 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意味가 통하지 않는다.

(3) törögsen qan: 이 句節도 위의 句節과 같이 韻關係로 qan의 語順이 뒤바뀐 것이다.

(4) albalan(alba+la(denominal verb)+n(Conv. modale))

(5) törölen. [B 144]는 이것을 töröl-en으로 보고 있으나 잘못이다. 이것은 törö+le(denominal verb)+n(Conv. modale)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신의 黃金 宮殿 저곳에 있나이다.

精妙하게 세우신 당신의 政道,

서로 만난 당신의 王妃와 王子들,

前에 모우신 당신의 많은 人民,

당신의 친척, 저기 있나이다.

당신의 자라는 百姓들,

당신의 沐浴한 물,

당신의 많은 蒙古人民들,

온논(江)의 대리권 물락에서 태어난 당신의 땅과 물, 저기 있나이다.

당신의 자색 말꼬리로 엮어 만든 당신의 纛標,

당신의 북과 吹貝와 호각,

뭉친 당신의 모든 人民들,

케뤼툰(江)의 귀뒤게 알란[에서] 汗(으로) 살던 당신의 땅과 물, 저기  
있나이다.

成長하기 전에 만난 당신의 빌테겔진 王妃,

【48】 불하투 한[山]<sup>(1)</sup>의 땅과 물과 부락,

보홀치 무후리, 당신의 두 친구,

완전한 당신의 大政道, 저기 있나이다.

化身으로 만난 당신의 후란王妃,

당신의 琵琶와 피리와 노래,

당신의 모든 大國,

후툽 한[山], 땅과 물 저기 있나이다.

하라후나 한[산]이 덩다고,

王妃 킬벨진이 아름답다고,

[48] (1) cf. 小澤重男: モンゴル語韻文の研究(古代日本語と中世モンゴル語比較研究, p. 465).

他國 탕군의 人民이 많다고,

사랑하는 옛 蒙古人民을 버리시렵니까? 나의 主여!

사랑스런 당신의 黃金 生命이 다해진다면,

王室 같은 당신의 遺骸를 모시고 갈 것입니다<sup>(2)</sup>.

당신의 王妃 嬪에 謁진에 보일 것입니다<sup>(2)</sup>.

당신의 모든 人民에게 돌아갈 것입니다다<sup>(2)</sup>』고 告했다. 汗 主는 어여삐 여기졌다. 大車는 소리내며 움직였다. 모든 人民은 歡喜했다. 汗은 大地 저곳에 보내졌다. 全長生 大墓는 여기서 시작했고, 汗은 宰相의 支柱가 되고, 모든 人民의 神體가 되었다. 永久히 못박은 八白室이 되었다. 聖主가 여기서 떠나실 때,

【49】 질거히 말쭙하셨기 때문에, 망금 大車의 바퀴통이 [진흙에] 빠졌다. 大國에 거짓 布告를 하고, 입으시던 옷, 天幕, 한쪽<sup>(1)</sup> 신을 거기 묻었다고 한다. 그의 참다운 屍體를 어느 사람은 불한山에 묻었다고 하고, 어느 사람은 알터이 汗의 北쪽, 켄테이 汗의 南쪽 에케 외툽이라는 곳에 묻었다고 말한다.

[이것이] 蒙古의 汗들 가운데 [가장] 尊貴한 成吉思可汗이다<sup>(2)</sup>.

【太宗·외게테이可汗】 그 뒤 3年이 지나서 소(牛)해<sup>(3)</sup>에 외게테이可汗이 四十三歲로 케류렌의 可테게 아루란에서 大位에 올랐다. 十三年이 지나서 소해<sup>(3)</sup>에 五十五歲로 유테큐 후란에서 돌아가셨다. 외게테이可

(2) qatun börtelčün-dür cin-u ücügölüye-ni: Partikel ni verlicht dem verbum finitum der Möglichkeit der Handlung, einer Unbestimmtheit usw. N. Poppe; Beiträge zur Kenntnis der altmongolischen schriftsprache (Asia Major I, 1924, 5, 675) 이 特殊한 分詞는 이 句節뿐만 아니라 黃金史의 蒙古語의 特徵을 決定한데 있어서 重要한 事實을 暗示한다. 여기 관해서는 黃金史의 蒙古語에 관한 筆者의 別稿에서 미루기로 한다.

[49] (1) öriyesün:=mo. öregesün, "one of a bair", [B 146]

(2) [B 146] This was činggis Qayan, supreme one of the Qans of the mongols. 이것은 차라리 本稿였서와 같이 「歷代 蒙古可汗 가운데서 가장 貴하신 成吉思可汗」의 뜻으로 보아야 옳다.

(3) 己丑年, 1229.

汗은 양띠<sup>(5)</sup>이다.

【定宗·큐룩可汗】큐룩可汗은 六年이 지나서 말(馬)해<sup>(6)</sup>에 일뮤게투에서 四十二歲로 大位에 올랐다. 다음해 양(羊)해<sup>(7)</sup>에 四十三歲로 셈시케에서 돌아가셨다.

【50】큐류可汗은 소띠<sup>(1)</sup>이다.

【뮙케可汗】이 뒤 五年이 지나서 뮙케可汗이 四十五歲로 돼지해<sup>(2)</sup>에 케류렌의 괴데게 아루칸에서 四月三日에 大位에 올랐다. 九年이 지나서 五十四歲로 양(羊)해<sup>(3)</sup> 징 장부라는 마음에서 돌아가셨다. 뮙케可汗은 토끼띠<sup>(4)</sup>이다.

【世祖·사투 세첸可汗】五年이 지나서 원숭이해<sup>(5)</sup>에 사투 세첸可汗이 四十歲로 상투에서 大位에 올랐다. 三十年이 지나서 말해<sup>(6)</sup>에 正月二十二日에 八十一歲로 다이두에서 돌아 가셨다. 세첸可汗은 뱀띠<sup>(7)</sup>이다.

【成宗·일제투可汗】그 뒤 또 말해<sup>(8)</sup>에 일제투可汗이 三十歲로 四月十日 시켈湖에서 大位에 올랐다. 十五年이 지나서 四十匹르 양해<sup>(9)</sup> 正月八日에 다이두에서 돌아가셨다. 일제투

【51】可汗은 소띠<sup>(10)</sup>이다.

【武宗·큐룩可汗】그 뒤 같은 해인 양해에 큐룩可汗이 二十七歲로 大

(4) 辛丑年, 1241.

(5) 丁未年, 1187

(6) 丙午年, 1246

(7) 丁未年, 1287. 이들 年代는 中國의 史記와 다르다.

[50] (1) 1205. 元史, 闕耕錄 등에 의하면 1206.

(2) 辛亥年, 1251.

(3) 己未年, 1259.

(4) 1207. 元史(卷三)에는 戊辰 十二月三日生 (1209) cf. [k 68]

(5) 庚申年, 1260.

(6) 甲午年, 1294.

(7) 1209.

(8) 1264.

(9) 丁未年, 1307.

(10) 1265.



位에 올랐다. 五年이 되어서 돼지해 다이두에서 돌아가셨다. 큐룩可汗은 뱀띠<sup>(1)</sup>이다.

【仁宗·부안투可汗】그 뒤 같은 돼지해에 부안투可汗이 三十七歲로 大位에 올랐다. 十年이 되어서 원숭이해에 四十七歲로 다이두에서 돌아가셨다. 부안투可汗은 돼지띠<sup>(2)</sup>이다.

【英宗·게게겐可汗】그 뒤 같은 해에 게게겐可汗이 원숭이해에 十八歲로 다이두에서 大位에 올랐다. 四年이 지나서 二十一歲로 돼지해에 상두 南쪽 모린 우업치군에서 돌아가셨다. 게겐可汗은 쥐띠<sup>(3)</sup>이다.

【泰定帝·이순 테물可汗】그 뒤 이순 테물可汗이 돼지해에<sup>(4)</sup> 三十歲로 궈테게 아루란에서

【52】大位에 올랐다. 六年이 되어서 三十六歲로 용해<sup>(1)</sup> 八月六日에 上都에서 돌아가셨다. 이순 테물可汗은 뱀띠<sup>(2)</sup>이다.

【天順帝·자야가투可汗】그 뒤 같은 해에 자야가투可汗이 三十五歲로 용해에 八月十二日에 大位에 올랐다.

【明宗·후특可汗】다음 해 뱀해<sup>(3)</sup>에 후특可汗이 東쪽에서 名聲을 올려 올라와서 正月十九日 三十歲로 大位에 올랐다. 寶璽<sup>(4)</sup>를 잃었다. 丞相을 죽이게 하여 그의 敵對人을 마중하도록 보내고 가서 후특可汗이 치 칩투湖에서 四月三日에 大位에 올랐다. 같은 해 八月六日에 昇天하셨다

【文宗·자야가투可汗】그 뒤 같은 달 十日<sup>(5)</sup>에 자야가투可汗이 大位

[51] (1) 1281

(2) cf. [B 148, fn. 5]

(3) 1300.

(4) *yisün temür qayan yaqai jil-dü ajuγu*: cf. [B 148, fn 9] 다른 版本과 같이 *ajuγu*는 없는 것으로 본다

[52] (1) 1328

(2) 1293.

(3) 己巳年. 1329

(4) *qasbuu tamaγa*: *qasbuu*는 *qas-buu*의 hybrid. [B 149]가 *qasbuu seal*로 翻譯한 것은 이 hybrid의 眞意를 把握하지 못한 까닭이다. *qas*는 蒙古語의 「寶·玉」, *buu*는 中國語 *pao*에서 借用된 「寶」이다.

에 올랐다. 五年이 되어서 검은 원숭이해<sup>(6)</sup>에 三十五歲로 다이두에서 昇天하셨다.

【寧宗·일차말可汗】 같은 원숭이해에 일차말可汗이 같은 달 五日에 大位에 올랐다. 같은 달 二十五日 원숭이해에 다이두에서

【53】 昇天하셨다.

【順帝·우하하두可汗】 그 뒤 같은 원숭이해 다이두에서 우하하두可汗이 태어나서 大位에 올랐다. 졸칠老翁의 쥬유라는 이름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집에서 무지개가 섰다. 이 징후를 라하와 이바후 둘이는 알고 可汗에게 말했다. 『이 아이는 可汗에게 나쁩니다. 좋다면 利益이 될 것이요, 나쁘다면 害가 될 것입니다. 이를 어려서 죽이십시오』라고 可汗에게 말했다. 可汗은 이 두 사람 말에 따르지 않고,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 라하와 이바후 둘이는 말하기를 『아! 이 아이를 죽이지 않으셨다. 그 뒤에 머리를 後悔하지 마십시오<sup>(7)</sup>』라고 말했다. 그 아이가 成長한 뒤, 東쪽의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 西쪽의 나라는 독도하 하라쥬가 다스렸다. 그 뒤 쥬게 부하 兄弟는 둘이서 독다하 하라칙 둘이를 可汗에게 비방하고, 『이 두 官吏는 당신의 倉庫를 管理할 때, 크고 좋은 것은 自己가 먹고 작고 나쁜 것은 可汗에게 가지고 와서 바쳤다』고

【54】 上奏했다. 이 말에 可汗은 같은 쥬게이를 『독나하와 하라칙을 잡아오라』고 보내셨다. 쥬게는 갔으나 到達하지 않고 도중에서 돌아와서, 가지 않았다고 可汗에게 報告했다. 또 보내셨다. [가지 않는다는] 前의 말을 했다. 可汗은 怒하셔서 독다하와 하라칙 둘이를 官吏에서 解職시키고 남은 大國을 쥬게와 부하 두 사람으로 支配케 하였다. 그 뒤 쥬게와 부하 둘이는 租稅와 財寶를 모으려 갔다. 三年이 지나도록 돌아오

(5) 壬申年, 1332

(6) sira mečin jil: qara mečin jil로 읽는다. 그 理由는 [B 149. fn. 5] 參照

[53] (1) gemjilegtün: cf. mo. gamsi- [B 150, fn. 4]

지 않았다. 可汗은 말씀했다. 『쥬게의 발은 대단히 무거워졌다. 쥬게가 돌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문직이에게 말씀했다. 그 뒤 可汗은 꿈을 꾸셨다. 『많은 軍士가 敵이 되어 와서 나의 域을 包圍했다. 이 敵이 무서워서 城內에서 이곳 저곳 돌아다녔다. [빠져]나아갈 틈을 찾지 못해서 또 西北쪽으로 갈 때, 한 틈이 보였다. 이 틈으로, 汗은 王位를 버리고 [또] 모든 나라를 버리고, 나가는 꿈을 꾸었다. 이 내 꿈이 좋은가.